

NEWS

2025년 3월 5일 수요일

김영록 지사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첫 발”

미국 순방 기간, 투자 유치·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과 협력 스탠퍼드대 ‘한·미 경제협력’ 특강·외국교육기관 설립협약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미국 순방 기간 핵심 성과로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프로젝트’ 추진을 꼽았다. 세계적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 경영진과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경제 협력을 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 기회를 지역 청소년에게 제공할 단초를 마련한 점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4일 전남도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미국 순방 기간 주요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가장 큰 성과로 15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규모인 3GW 이상의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 프로젝트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을 1순위로 꼽았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6일 샌프란시스코 하얏트 호텔에서 해남군, 퍼힐스(FIR HILLS), 사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와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 관련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행정·재정적 지원, 빅테크 기업 유치, 부지 조성 및 공급 등이다. 이는 전남도가 글로벌 AI 산업의 핵심 허브로 발돋움하는 첫 결실을 내딛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 받는다. 대한민국이 급성장하는 글로벌 AI 산업에 대응하고, 차세대

AI 인프라 경쟁에서 선도국으로 자리잡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또 스탠퍼드대, 한국에너지공단, 스텝 팜 로드(SFR)와 함께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에 참여하는 내용의 투자협약도 체결했다. 스탠퍼드대는 글로벌 AI 및 슈퍼클러스터 분야의 최신 기술 자문을 하고, 한국에너지공대는 전력망 최적화 연구와 기술개발을 맡게 된다.

김영록 지사는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전 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스탠퍼드대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미 글로벌 혁신, AI 시대 도전과 협력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도 했다. 강의에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제도적 비전을 제시하며 AI, 에너지 등 한국과 미국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27일에는 기술 혁신과 스타트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 세계적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 경영진과의 만남이 있었다. 김영록 지사는 스탠퍼드대 총장을 역임한 구글(Google) 모기업인 알파벳(Alphabet)의 존 헤네시 의장, 북미 투자회사 중 하나인 웨슬리 그룹 회장, 스티브 웨슬리와 간담회를 통해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글로벌 비전을 공유했다.

이어 AI반도체 제조기업인 그록(Groq) 본사를 방문해 CEO인 조나단 로즈를 만나 AI 반도체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또 빅테크 기업들과 국내 기술 생태계 활성화와 투자에 대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국내 청소년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협력이 도 성사시켰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5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4일 도청 기자실에서 미국순방 기간 중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투자 유치와 글로벌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명문 사립학교인 레드랜드 크리스천 스쿨(RCS)과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도, 해남군, 사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RCS가 외국 교육기관을 원활히 설립·운영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RCS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융합교육의 선도 기관으로, 미국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다. 솔라시도에 글로벌 교육 인프라 구축 기반이 마련됨에 따

라,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역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 사업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빅테크 기업 경영진들과 만남에서 나는 최첨단 기술의 발전, 투자와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참고해 전남이 세계적 AI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차근차근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시, 3149대 선착순 모집

광주시는 올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할 차량 3149대를 오는 1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 감축거리와 감축률에 따라 현금으로 특권을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광주지역에서는 소나무 8만6000여 그루를 심은 효과를 거뒀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이며, 사업용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는 제외된다.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가입일~2025년 10월말)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12월에 지급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전송된 문자링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는 3137대가 참여해 1879대가 1억3500만원의 특권을 받았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8만6000여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청년이 500만원 모으면 500만원 더준다

광주시, 청년일자리 공제사업 300명 모집 청년·기업·시 공동 적극·지역정착 유도

광주지역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과 광주시가 500만원을 함께 적립해 1000만원을 만드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사업’이 시작된다.

광주시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사업’에 참여할 청년 30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2년간 청년이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각각 적립해 만기공제금 1000만원을 청년에게 지원한다.

지난해 6월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현재 72개 중소기업과 청년 재직자 2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시비 8억 6000만원 투입, 청년 300명을 신규로 모집해 청년 재직자 총 500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19~39세 이하 광주 청년(월 급여 중위 소득 150% 이하)이다. 단 정부와 지자체 주관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포함해 광주청년 통합플랫폼에 가입 신청을 하면, 이후 지원 신청자의 소득과 기업 참여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문자메시

지 등을 통해 개별 통보한다.

광주시는 일자리 공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광주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한다.

광주시 ‘직장 적응 지원 사업’과 연계해 기업 최고경영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년 진화 조직문화 교육과 신입직원의 직장 적응지원 교육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 참여에 따른 기업 적립금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권오승 청년정책과장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경력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올해 일자리 공제 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내년 말까지 감면 연장 추진

광주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내년까지 연장 추진한다. 감면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다.

광주시는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기침체·소비활동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영업소에 차량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구비해 각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 마이스 인센티브 지원 범위 확대 10명 이상 중소기업회의, 최대 3000만원 지원

전남도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행사유치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전남 마이스(MICE)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역의 독특한 관광자원과 유니크네슈를 활용한 다양한 마이스 행사를 유치·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회의 지원 기준 완화, 전남유니크네슈 활용 인센티브 가산 상향, 최대 3000만원 지원 등 전년보다 맞춤형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중소기업 회의 지원의 경우, 최소 참가 인원 기준을 30명에서 10명으로 대폭 완화하고 참가자 1인당 지원금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전남유니크네슈 활용 시 참가자 1



인당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센티브 가산 지원금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마이스 행사를 적극 유치해 전남유니크네슈 등 중소기업 회의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마이스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기관·단체나 위임을 받은 국내 기관·단체이며, 학회, 협회, 조직위원회, 기업, PCO 등이 포함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더욱 특별하고 품격 있게, 잊지 못할 순간으로 -

HOTEL 아트하임

VIP CLUB 무기명회원 모집

상담문의 062.415.7330

혜택	Vvip 1천만 (3년)	Vip 4백만 (1년)
숙박	연40박 (한시적), 추가 숙박시 주중 30% 주말 20%	
조식	숙박시 조식 2인 무료(연 36매) 추가 증정	
사우나	무료 사용	
피트니스	무료 사용	
커피숍	커피 50% 할인, 기타음료 20% 할인	
골프대회	그린피 무료, 시상식, 연 1회	
컨퍼런스룸	연 10회, 1회 타임 3시간 무료 사용	
연회장	10% 할인	
웰니스프로그램	전문의 초청 건강세미나 연 2회	
광남일보	기업탐방 및 오피니언 리더 특집기사 연 2회 전문 이미지 광고 광남아카데미 초청 강연 연 10회 (석식제공, 사진예약)	
광주버스 방송	광주시내버스 내부 모니터(버스 1대당 모니터 2대) 20대 12개월 / 50대 4개월 / 100대 2개월	
	3년 3회 제공 (4,800만원 상당)	1년 1회 제공 (1,600만원 상당)
월간지전라도인	3년 무료구독	1년 무료구독

(주) 호텔아트하임 멤버십 클럽은 지역정치지 “광남일보” 중합광고대행사 “에드하임” 이 함께합니다.

★ 대면회장(150명) / 소면회장(30명) /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운영
(주) 호텔아트하임(주)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예약문의 062)236-5881